

기준치 미달 땀 공개

금타 화재 대기오염도
광주시 입맛대로 발표

기준치 초과 땀 ‘쉬쉬’

보건환경연구원 측정치 ‘눈가리고 아웅식’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 논란
광산구 “초과검출량 입장 내달라” 요구에 시 “공개하지 말라” 엄포도
잘못된 정보로 안전 오인 초래도... “시민들 안심시키기에만 급급” 지적

광주시와 환경당국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발생 이후 대기의 유해물질 측정값을 선택적으로 공개해 시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당국이 잘못된 기준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대기오염에 대한 긴장도를 낮출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광주일보 5월 23일 1·6면>하는가 하면, 재난 문자 발송 과정에서조차 정작 기준치 이상으로 치솟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누락하는 등 시민들에게 ‘눈속임’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알 권리 보장한다면서... 기준치 초과 재난 문자는 미발송-광주시 광산구는 지난 20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미세먼지 등 검출량이 광주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광주시에게 요구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황 등 6가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지난 19일 오전 6시 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대기기준(미세먼지 100㎍/㎥, 초미세먼지 35㎍/㎥)을 초과한 데 이어 20일 새벽 4시까지도 미세먼지(농도 200㎍/㎥), 초미세먼지(164㎍/㎥)가 기준을 웃돌고 있는 점이 확인된 데 따른 요구였다.

광주시는 그러나 20일 오후 광산구 담당자에게 ‘일정 시간 대기질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는 대기환경기준 이내로 측정된다’는 문구를 ‘안전안내문자’로 발송하라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광산구는 정확한 수치가 담겨있지 않았으며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또 매일 발송 전 “광주시 관계자가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금호타이어 화재 발생 직후 시민들에게 발송된 재난 문자 중 대기오염물질 측정치가 치솟은 내용은 문자에서 제외됐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17일 오전 8시 16분부터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보냈고, 같은날 오전 9시 34분에는 ‘연기, 가스 등이 발생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인근 주민들은 창문 닫속, 마스크 착용 등 안전에 유의바란다’고 보냈다.

같은 날 낮 12시에는 ‘유해물질 포함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중이다. 만일을 대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발송하고 45분 뒤 ‘메시지 측정결과 현재까지 문제가 없으나 문제 발생시 공개예정’이라는 안전안내문자도 보냈다.

광산구도 18일 낮 12시 8분 ‘연산강정 매시간 대기질 측정, 현재까지 유해화학물질 미검출’이라고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대기오염이 심해진 19일 오전에는 광주시는 단 한 건의 안전안내문자도 발송하지 않았다. 오후 2시 37분 광산구가 보낸 메시지도 ‘진화 작업 중 분진과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 창문을 닫고 외출시 마스크 착용 바란다’는 내용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광주시와 광산구는 오염물질 검출 전에는 ‘현재까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내더니 정작 기준치를 초과한 19일,



금남로서 5·18 청소년 문화제

광주 518 청소년 문화제 ‘소년, 금남로로 온다’가 24일 광주 동구 금남로 차있는 거리에서 진행되고 있다. 거리에 모인 청소년들이 헌법전문 낭독과 함께 율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0일 문자에는 이같은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이다.

◇입맛대로 어긋나는 기준 적용... “국민 눈속임”
=행정기관이 임의적으로 정부를 취사·선택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고 눈속임을 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시는 또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물질 측

정치를 공개하면서도 잘못된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선택, 비교하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산강유역환경청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59종에 대한 측정치를 ‘불검출 되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이라는 고시를 통해 사용금지한 기준을 근거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광주시가 법 규정에 어긋나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비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소방당국, 금타 화재 선부른 ‘완진 선언’ 의문

소방청 규정과 달리 조기 선언
이틀만에 불씨 되살아났는데도
명확한 해명도 하지 않아

광주 소방당국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 규정과 달리, 성급하게 ‘완진’ 선언을 한 배경을 놓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소방청 규정에 맞지 않는 ‘완진’ 선언으로 이틀 만에 불씨가 되살아났는데도,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내세워 선불리 완진 선언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광주광산소방 등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50분 공식 언론브리핑을 열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에 대해 ‘완진 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발생 이후 76시간이 지난 뒤로, 완진 선언으로 현장 지휘권도 소방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갔다.

소방당국은 그러나 ‘완진’ 선언을 하고도 22일 오후 2시까지 소방대원을 투입해 ‘잔불정리’를 하는가 하면, 소방대원이 철수한 지 3시간여 만인 22일 오후 5시 40분께 불꽃이 되살아난 것도 확인됐다.

소방청이 발간한 ‘국가화재분류체계 매뉴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상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에 따르면 화재진압단계는 ‘초진’, ‘잔불정리’, ‘완진’ 세 가지 단계로 분류되는데, ‘완진’은 ‘소방대에 의한 소화활동의 필요성이 사라진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광주 소방당국의 완진 선언이 충분한 현장 상황에 대한 분석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광주 소방당국이 25일 현재 잔불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살펴며 현장 내 남은 열기로 연기가 발생하고 있는 ‘잔불정리’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애초 ‘완진’ 선언 자체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소방당국은 “화재 중심부인 공장 내 2층 중앙~우측 후면에서 불타 녹은 가연성 고무 덩어리 50여개가 성인 가슴 높이 정도로 쌓여 있는데, 이 곳에서 불씨가 커졌다”는 입장이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완진 선언을 성급하게 결정한 배경과 기준을 놓고 ‘완진 선언 당시에는 불이 3~4일 내에 알아서 꺼질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추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대기오염 측정 결과 투명하게 밝혀라”

환경단체, 광주시에 촉구

광주 환경단체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대기환경오염 등 측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는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 관점에서 대응해야 하며, 연소된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 및 대기·수질오염 측정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가 최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이후 대기환경 오염 물질 수치를 공개하면서 관련법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측정 기준을 활용해 발표하면서 ‘외출해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잘못 인식하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지적(광주일보 5월 23일 1·6면)이 제기되면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1일 연산강유역환경청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59종 측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이라는 고시로 사용금지한 기준을 근거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

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어긋나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비교하는 등 권한을 넘어서 행정으로 국민들의 대기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광주시와 연산강환경청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수적인 측정 기준을 찾아 비교하는 수치로 활용했다면 정작 잘못된 기준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긴장도를 낮춰 왜곡된 해석을 불러올 수 있는 정보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광주시와 연산강유역환경청은 시간평균가중치(TWA) 기준을 들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59종 유해물질 측정 결과가 극미량이라고 밝혔다”며 “반면 3000여명 시민들이 두통, 어지럼증, 호흡기질환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체감 피해와 기준치 이하라는 발표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오염은 바람의 방향, 측정 방식에 따라 그 한계가 명확하며, 토양·수질 오염과 같은 장기적인 건강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